

AIDS NEWS

세계 첫 HIV 유전자요법 임상실험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한 환자에게 그의 건강한 쌍둥이 형제로부터 얻은 유전자조작 세포가 주입되는 치료요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호주 과학자들이 밝혔다.

이는 세계 최초의 잠재적 HIV 유전자요법에 대한 임상실험이라고 이들 과학자는 말했다.

피터 맥거린 호주 과학기술장관이 발표한 이 요법은 캠버리의 영연방 과학산업연구기구(CSIRO)가 고안한 혁명적인 유전자 절단술에 근거하고 있다.

맥거린 장관은 이 실험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이 분명하며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이 실험은 지난 87년 CSIRO의 분자생물학자 짐 해셀로프와 웨인 거라치가 발견한 기술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기술은 리보자임, 혹은 유전자 절단으로 불리는 효소가 유전자 물질들을 조각으로 절단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술에 따라 감염되지 않은 쌍둥이의 건강한 T-세포를 항 HIV 리보자임으로 무장하여 HIV 감염 쌍둥이에게 주입하는 것이다. (시드니 AFP=연합)

泰國 일본과 에이즈백신 개발

세포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에이즈 백신이 태국국립보건연구소(NIH)와 일본 국립감염질병연구소(NHD)에 의해 곧 공동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NIH 소장인 프라이짓 와라치 박사는 이 백신은 현재 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백신과 달리 세포매개 면역

백신이라고 밝혔다.

다른 백신들은 체액면역백신이 아니면 체액을 근간으로 한 면역백신이다.

세포 매개면역 백신은 성공확률이 80%나 되는데 비해 체액면역백신은 30~4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프라이짓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이 새로운 타입의 백신과 함께 현재 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른 백신들도 계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콕=연합)

인도 올 상반기 약5천명 에이즈 발병

인도의 에이즈 바이러스(HIV)감염자들 가운데 약 4천7백25명이 올 상반기에 완전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레누카차우드후리 보건장관이 밝혔다.

그는 하원에서 국립에이즈통제기구(NACO) 자료를 인용, 약 6만5천2백명이 새로이 HIV에 감염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인도에서 매년 약 5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델리 dpa=연합)

술찌꺼기에서 에이즈면역 촉발제 검출돼

에이즈환자의 면역체계를 촉발시키고 인체를 유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물질이 술찌꺼기에서 발견됐다고 태국 과학자들이 발표했다.

독소가 없는 이 물질은 또 증류를 거친 술찌꺼기에서도 발견된다.

케사 소장은 "여러차례의 실험결과 CM-글루텐은 자외선의 인체 침투를 저지하는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외선은 조기 노화와 피부암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이 물질은 또 감염된 피부를 치료하고 화장품의 주름방지 요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케사는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물질이 에이즈환자의 면역체계를 다시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 물질의 햇빛차단 효과가 거의 100%인 것과는 달리 에이즈 연구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밝혔다. (방콕=연합)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 있는 워렌힐 공동묘지

AIDS NEWS

남성 腹部서 여성생식기 발견

인도북부에 사는 한 35세의 남자 배속에서 완전히 자란 여성의 생식기가 발견됐다고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스가 보도했다.

메레트시에 사는 모하메드 자프를 이라는 이 남자는 복통을 호소해 의사들이 종양이 있음을 발견하고 개복 수술을 한 결과 子宮과 卵巢 등 완전히 성숙한 여성의 생식기가 나타나 이를 제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가 수술을 받은 병원의 산부인과에서는 이 여성생식기중 자궁은 완전히 성숙돼 임신도 가능할 정도라고 말했다.

결혼한지 10년째인 이 남자는 고환에 생긴 종양으로 정자가 제대로 생산되지않아 지금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힌두스탄 타임스는 전했다. (뉴델리 UPI=聯合)

美 에이즈 고의 전염 범죄행위 규정

영국은 고의적으로 에이즈를 전염시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잭 스트로 내무장관이 밝혔다.

스트로장관은 하원질의회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질병을 전염시키는 행위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와 동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도록 지난 1861년에 제정된 '개인에 대한 범죄법'을 수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의 한 법정은 이날 에이즈에 감염된 키프로스 어부 파블로스 게오르규(40)에게 영국 여인과 성행위를 하면서 콘돔을 착용하지 않아 에이즈를 전염시킨 죄목으로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런던 AFP=聯合)

泰國 자생 약초서 HIV 퇴치효소 발견

에이즈 바이러스(HIV) 복제 효소와 水泡疹바이러스를 억제하면서 인체 면역반응을 증진시키는 물질이 태국 지방의 약초로부터 추출됐다고 공공보건부 의학부 관리들이 밝혔다.

보건부 관리인 안찰리 추터푸티는 23개 식물을 실험실에서 실험해본 결과 2~3개 식물의 추출물이 수포진 바이러스와 HIV 복제 과정을 억제하는 활동을 하는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안찰리는 실험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말하고 임상실험을 하기까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콕=聯合)

다이어트 에이즈 감염 가능성 높아

독일 과학자들은 최근 다이어트가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 가능성을 높여주며 영양상태가 나쁜 HIV보균자일수록 쉽게 에이즈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이어트와 HIV 감염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쾰른대 연구팀의 레기나 칼라비스 박사는 영양부족과 HIV 감염 및 에이즈 발병간의 관계를 '악순환'이라고 묘사하면서 그같이 발표했다.

칼라비스 박사는 HIV양성 반응자는 보통 메스꺼움과 구토, 식욕부진, 영양부족 등으로 시달리며 게다가 양성 반응 판정에 따른 심리 정서적 압박감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HIV 양성반응자는 가벼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게 좋으며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고 나중에는 다이어트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연

구팀은 권고했다. (쾰른 dpa=聯合)

약물캡슐 이식 에이즈失明 지연

망막이 사이토메갈로(거대세포)바이러스에 감염된 에이즈환자의 눈에 간시클로비르의 캡슐을 이식할 경우 주사하는 것보다失明진행을 3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발표됐다.

간시클로비르가 눈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도록 하는 캡슐이식요법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지난 95년 승인했으며 현재 에이즈와 관련한 망막의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정석 치료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캡슐이식요법의 약점은 감염이 한쪽 눈에서 다른 쪽 눈으로 확산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스턴 AP=聯合)

美 에이즈 확산 막을 수 있었다

美의료당국이 지난 80년대중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보건조치의 실시를 막지 않았더라면 에이즈 확산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미국의 한 에이즈 전문가가 주장.

지난 9년 발간된 "에이즈-불필요한 유행병"이라는 책을 쓴 스탠리 먼테이스 박사는 美내외과의사협회보인 '메디컬 센터럴' 최신호에서 80년대 중반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를 인식한 몇몇 사람조차 의견을 밝히기를 꺼렸거나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에이즈 환자들은 美의료당국이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공중

AIDS NEWS

보건조치를 실시하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AFP=聯合)

네덜란드 동성연애자 헌혈권 쟁취 투쟁

네덜란드의 동성연애자들은 동등한 헌혈권 쟁취를 위해 자신들의 피를 거부하는 혈액은행을 동등기회위원회에 공식 제소키로 결정.

이들은 혈액은행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피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초 동성연애자를 헌혈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구했으나 끝내 거부되자 이처럼 결정한 것.

동성연애자들은 헌혈자의 동성애 여부보다는 성생활 안전도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면서 법정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 (암스테르담 AP=聯合)

성교중 여성 감염위험 남성의 두배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1억6천3백만 명이 매독, 임질, 킬라미디아와 같은 성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한 국제의학 전문회의에서 발표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부인과 의사 7천명과 제약산업종사자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펜하겐에서 6주 일정으로 개막된 이번 회의에서 공개된 이 보고서는 성교중 여성의 성병 감염 위험이 남성의 2배이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성병은 "출산 시 질병 및 사망에 이어 여성의 건강을 빼앗는 두번째 원인"이 되고있다고 강조했다.

올해초 WHO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2:1 효능이

인정된 항생제들이 임질 치료에 더이상 효과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코펜하겐 AFP=聯合)

수술중 에이즈 감염 의사에 보상

프랑스의 한 법원은 정부에 대해 수술중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한 외과의사에 5백50만프랑(1백만달러)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고 법무부 관리들이 밝혔다.

파트릭 코앵이란 이부의 정형외과의는 지난 83년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한 환자에 의해 HIV에 감염됐으며 10년 뒤 수술을 하던중 다른 한 환자에게 HIV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사는 자신이 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파리 서쪽 약 25km 떨어진 나무처 생 제르맹 앙레 병원에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코앵 박사의 감염은 작업장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프랑스의 노동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파리 AP=聯合)

베트남 에이즈 환자 급증

베트남에서 지난 7월 최소한 1백20명 이상의 에이즈환자가 새로 발견되는 등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베트남 관영 언론이 보도했다.

뉴 하이노紙는 에이즈 환자가 베트남에서 첫 발견된 지난 94년이후 지금까지 총 6천5백88명의 HIV 감염자가 발견됐다고 보도하고 새로 HIV에 감염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북부 해안가의 황년새 출산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 전체 61개주중 HIV가 확산

된 州는 54개州로 최근 늘어났으며 HIV 감염자중 최소한 8백82명이 에이즈환자로 발견, 이들중 4백78명이 사망했다. (하노이 AP=聯合)

두바이 에이즈 판명 외국인 즉각 추방

에이즈(AIDS)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난 외국인은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두바이에서 즉시 추방되며 다시는 입국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걸프 뉴스紙가 현지 관리의 말을 인용, 8월 12일 보도했다.

향산 압둘라 한산 두바이 외국인 거주국 조사국장은 두바이에서 매달 평균 40명이 HIV 양성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6월에는 36명이 에이즈로 판명돼 추방됐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당국이 새로운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하려는 외국인들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실시, 양성반응이 나오면 즉각 추방하여 어떠한 형태든 다시는 입국할 수 없도록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두바이 dpa=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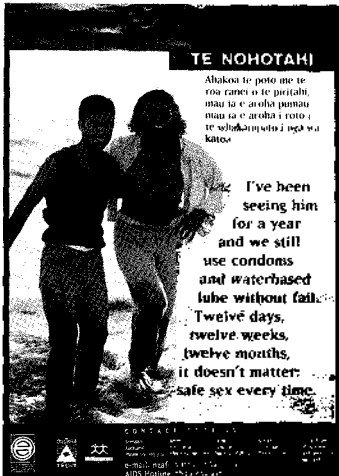
"동성애는 정신병 아니다"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미심리학협회가 최근 선언했다.

이 기구는 시카고에서 열린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동성애 성향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이른바 "전환" 또는 "개선" 치료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부족과 무지, 그리고 편견 때문에 일부 게이와 레즈비언, 兩性愛者, 그리고 불확실한 사람들"이 이같은 치료를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AIDS NEWS

이 협회는 또 정신의학 종사자들에게 "과거 오랫동안 정신질환자로 의심받아온 동성애자들의 불명예를 씻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로스앤젤레스=聯合)



이스라엘군 징집시 선별 에이즈검사

이스라엘군은 에티오피아 출신 유대인을 비롯해 "에이즈감염 위험이 높은"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 징집시 비밀리에 에이즈검사를 해왔다고 시인했다.

이는 에티오피아 출신 유대인 등 차별대우를 받고있는 특정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반발을 유발시켜 이스라엘내의 인종분쟁을 격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시몬 로스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군이 70개국 출신 이민자를 에이즈검사 대상으로 삼고있다고 말했으나 최근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舊소련의 유대인 이민자는 에이즈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이디오투트 이차로노트는 11면 머릿기사를 통해 군이 징집신체검사

시 동성연애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에티오피아 이민자와 기타 에이즈 감염위험이 높은 집단의 정원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해왔으며 보균자로 판명될 경우, 병역을 면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예루살렘 AP=聯合)

세균성 陰病 HIV감염 위험 높인다

陰菌의 불균형이 에이즈유발 HIV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영국 의학지 랜싯에 발표됐다.

최신히 랜싯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우간다 지방의 15~59세 연령층 여성 4천7백1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39세 미만 여성 가운데 나타난 HIV-1 감염증가율은 이상질균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발견됐다.

이 연구보고서는 세균성 질증과 HIV증가 사이의 연관성은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발견됐으며 40세 이상 여성들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유상균의 상실이나 세균성 질증이 HIV-1 감염 가능성을 증대시킬지 모른다고 시사했다. (런던 AP=聯合)

美 에이즈 고의전파에 重罪 적용

美의회 세출위원회는 상대방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행위를 가져 고의로 에이즈를 전파시키는 사람들에게 중죄를 적용시키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법률로 확정될 경우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밝히지 않고 상대방을 에이즈에 걸리게 할 목적으로 성행위를 가진 사람들은 중죄

가 적용된다.

이 법안을 후원한 캘리포니아 지방 검사협회의 대변인은 현재까지는 에이즈를 살인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기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출위원회는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가 고의로 상대방에게 에이즈를 전파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채택할 예정인데 지방감사들은 이같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새크라멘토 UPI=聯合)

性범죄과자 주민告知制 합헌판결

성범죄자가 출옥할 때 당국이 주민들에게 그의 존재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뉴저지州法이 합헌판결을 받아 이른바 "메건법" 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옥할 때 그가 돌아와 이웃에서 같이 살게 됐음을 주민들에게 告知하는 것은 그에 대한 이중형벌이라는 뉴저지공공권익옹호기구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메건법"의 일부 기술적 수정을 요구했다.

뉴저지법에 따르면 당국은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등급으로 매겨 '온건' 등급일 경우에는 학교와 기타 시설에만 그의 존재를 고지하고 가능성이 높게 판정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직접 이 사실을 경고하도록 돼 있다. 성범죄과자 고지제는 지난 96년 3월이래 항소법원에 제류돼 시행이 중지돼 왔다. (트렌턴(美뉴저지州) AP=聯合)